

Message from the CEO

“사보 <당근농장>은 당근영어의 모든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허브로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.”

사보 <당근농장>을 펴내며...

유래 없는 무더위가 2006년 여름을 강타하며 우리의 일상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날이 지속될 때 사보 <당근농장>은 하루하루 가을을 준비하며 9월호를 창간으로 우리 곁에 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.

지난 6년간 당근영어는 Productive English를 지향하며 대한민국 영어교육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“기업과 개인의 글로벌 역량강화”를 위한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. 아침, 저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일선에서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과 회사 임직원 및 주주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오늘 당근영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. <당근농장>은 이 모든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허브로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.

우리 모두의 가정에서, 사무실에서, 교육 현장에서, 그리고 멀리 미국 법원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축하해 줍시다.

500여 당근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사보창간을 축하 하며 2006년 가을이 더없이 풍성하길 기원합니다.

Written by 노상충(James Roh) C.E.O

